



Chung-ang university
Feminists Unite with Queers
Film festival

10.27 Tue. 화 - **10.30** Fri. 금

중앙대학교 페미니스트&퀴어 영화제

페미니즘&퀴어 이슈와 관련된 영화상영 및 GV, 강연

법학관 대강당 | 의학관 301·302호 | 중앙도서관 미디어실

일정표

영화 및 강연, 연사 소개

중앙도서관 미디어실 A.Room 상영목록

FUQ 소개

참여단위 소개

올해의 FUQ

주최

FUQ 기획단 (녹지, 레인보우피쉬, 씨:리얼, 자유인문캠프, 중앙문화)

FUQ(Feminists Unite with Queers)는 페미니즘과 퀴어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앙대학교 내 학생단체의 첫 번째 연합행사입니다.

페미니즘과 퀴어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내에 소수자 인권 감수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전부터 각 단위들마다 영화제, 강연회, 교지 발간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왔는데, 올해부터는 페미니즘과 퀴어 이슈라는 공통적인 관심을 갖는 단위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보다 확장된 규모로 연합행사를 진행하여 학우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FUQ는 페미니즘과 퀴어라는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화제 포맷의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FUQ는 나아가 페미니즘과 퀴어 이슈에 관심이 있는 학생단체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외된 목소리를 널리 나누는데 힘을 쏟고자 합니다.



녹지

1967년 창간된 대학 내 최초의 여성주의 교지입니다. 매 학기 사회, 학내의 다양한 이슈를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비판하는 책을 발간합니다. 또한 타 단위와 연대하여 여성주의와 관련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피쉬

중앙대학교 1캠퍼스(서울), 2캠퍼스(안성) 통합 단위의 학내 성소수자 동아리로 2000년에 발족하였습니다.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등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임의 주체가 되어 학내 성소수자 간 친목을 꾀하는 한편, 여러 단체와 함께 대학 안팎의 성소수자 인권 향상을 목표로 퀴어 퍼레이드 참가와 함께 학내 책자 발간 및 영화제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씨:리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입니다. 학내의 성평등·반성폭력 문화의 확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화제, 강연회, 세미나, 부스사업 등 다양한 학술, 문화, 일상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인문캠프

"자기교육 운동-해방의 인문학"을 슬로건으로 연속강좌와 공개강연, 오픈토크, 독립저널 발행, 다큐멘터리 상영회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는 청년 단체입니다. 자본의 십자포화를 맞아 양식 있는 지성인으로 살아가고자하는 소박한 꿈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암울한 대학에서 새로운 희망의 진지를 구축하려합니다. 졸업과 취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야하는 수업이 아닌, 대학에 와서 꼭 듣고 싶었던 강의, 대학에서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을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중앙문화

1953년 창간된 중앙대학교 교지입니다. '의혈과 함께하는 진보연론'이라는 편집기조 아래 한 학기에 한 권씩 책을 발간합니다. 책을 통해 중앙문화는 약자와 소수자의 편에 서는 진보적인 시각으로 학내외 이슈를 심층적으로 기록하고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자치연론 지원사업, 강연회, 영화제 등 다양한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FUQ는 2015년, 중앙대학교라는 맥락 속에서 페미니즘과 퀴어 이슈에 관심을 갖는 학생단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으며,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올해에 많이 이야기되었던 주제뿐만 아니라 대학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단체가 가시화하고, 공론화해야 할 주제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학 내 성폭력**과 **퀴어 입문: 고정관념 깨기**라는 두 개의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다각적인 접근을 위해 영화 상영과 GV, 관련 주제에 관한 학술적인 공개강연이라는 포맷을 설정하였습니다.

페미니즘: '대학 내 성폭력'

한국사회는 성폭력에 무감합니다. 대학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할 교육은 존재하지 않고, 성폭력적인 문화가 만연합니다. 과, 동아리 등 공동체 내에서 너무나도 많은 성폭력이 일어나지만, 문제제기조차 되지 않거나 은폐됩니다. 선배, 후배, 동기, 교수 등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2차 가해에 의해 제대로 학교생활조차 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사건을 쉬쉬하거나,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배제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남성들은 자신들은 잠재적 가해자가 아니며, 대학에서, 특히 자신의 주변에서 성폭력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틀린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학 내 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대학사회 내에 만연한 성폭력적인 문화에 얼마나 둔감한지, 이것이 수많은 여성 구성원에게 어떤 공포와 불안, 다종의 피해로 다가오는지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 내 성폭력'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미국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헌팅 그라운드>를 함께 보고 GV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퀴어 입문: '고정관념 깨기'

올해 치러진 퀴어퍼레이드에 대해 SNS에는 정말 많은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퀴어퍼레이드에 의해 가시화된 성소수자들에 대해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중심주의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혐오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나 페이스북에 존재하는 각 대학교 대나무 숲(익명 제보게시판)에는 익명의 혐오발언이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글들은 아무런 논리도 없는 혐오 그 자체였고, 또 어떤 글들은 무지와 편견이 뒤섞인 근거를 논리인 것처럼 가장한 혐오였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를 혐오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대나무 숲에서의 혐오발언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우들이 혐오발언의 주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제도교육에서도,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대학교육에서도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중심주의를 끊임없이 주입받고 내면화합니다.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만이 존재하며, 이성애가 아닌 다른 사랑의 형태는 모두 '비정상' 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도권이 만들어낸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옆에는 성소수자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너무도 쉽게 합니다.

그렇게 '정상성'의 범주에 속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을 끊임없이 비가시화하고 배제함으로써 자신들의 영역을 지킵니다. 그렇게 비가시화된 성소수자들은 때로는 인터넷에 만연한 혐오발언을 보며 좌절하고, 혐오를 내면화해 자신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벽장 밖의 세계는 너무도 험난해, 자꾸만 안으로 침잠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훨씬 더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중심주의라는 낡은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고, 사유의 세계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정체성과 지향을 가졌든, 어떤 모습이든,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든 그 존재만으로 모두 괜찮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퀴어 입문: 고정관념 깨기'를 주제로 하는 강연을 통해 각자의 사고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모두 괜찮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영화 <인 더 턴>을 함께 보고, GV를 가지며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일정표

본 일정표

10/27(화)	10/28(수)	10/29(목)	10/30(금)
페미니즘		퀴어	
영화 <더 헌팅 그라운드> 상영 및 GV	강연 <쾌락과 위험 사이, 욕망과 폭력 사이>	강연 <시스섹시즘, 이성애주의 규범 묻기>	영화 <인 더 턴> 외 단편 상영 및 GV
송란희	이나영	루인	에디
7:00-10:00	7:00-10:00	7:00-9:00	6:00-10:00
303동 207호 (법학관 대강당)	106동 301호 (의학관 301호)	106동 302호 (의학관 302호)	303동 207호 (법학관 대강당)

중앙도서관 미디어실 상영

10/27(화)	10/28(수)	10/29(목)	10/30(금)
페미니즘		퀴어	
<델마와 루이스>	<여섯 개의 시선>	<헤드워>	<브로크백 마운틴>
1:00-3:10	1:00-2:50	1:00-2:35	1:00-3:13
중앙도서관 미디어실 ARoom(4층)			

영화 및 강연, 연사 소개

<더 헌팅 그라운드(The Hunting Ground, 커비 딕, 2015)>



미국의 여대생 5명 중 1명은 성폭력을 경험한다. 이 중 단 5%만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뿐이며, 가해자가 처벌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영화는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 퍼져있는 성폭력과 이를 은폐하려는 대학 사회의 충격적 현실을 고발한다. 가히 '문화'라 할 만한 대학 내 성폭력의 실태는 여지껏 이를 축소, 부인하여 학교의 '명예'를 지키려는 대학 당국에 의해 감춰져 왔다. 범죄 사실을 신고한 생존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 측의 불신과 묵인, 비난과 보복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지 않는다. 논란을 일으키고, 다른 생존자를 지지하는 움직임을 만든다. 새로운 전략으로 맞서 싸운다. (출처: 여성인권영화제)

"Walk Out"

GV 송란희

한국여성성문화 사무처장

제 9회 여성인권영화제(2015) 수석 프로그래머

강연 <쾌락과 위험 사이, 욕망과 폭력 사이: 젠더폭력의 관점에서 성폭력 바라보기>

성폭력은 여성이나 여아가 주로 피해자가 되는 폭력의 한 형태다. 이는 지배와 통제로서 남성 권력을 강화하고, 여성의 (물리적, 상징적) 위치를 재확인하는 기제가 되어, 결과적으로 남성성/여성성의 위계적 질서를 (재)확인하고 강화한다. 그러므로 성폭력은 포괄적 의미의 젠더 폭력이다. 이 강연에서는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긴밀하게 결합하여 기존의 불평등과 차별을 재생산하는 기제가 되는 성폭력의 문제를 대학 내 구성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연사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구 성평등상담소장 (2009-2011)

제 1대 인권센터장(2012)

영화 <인 더 턴(In the Turn, 에리카 트렘블레이, 2014)>



"This has been the best day of my life."

캐나다에 살고 있는 10살이 된 트랜스젠더 소녀 크리스탈에겐 세상은 매우 차갑다. 학교에서 그녀에게 가해졌던 여러 사건들로 인해, 활발했던 모습은 이제 과거가 되고 있는 듯하다. 운동을 좋아했던 그녀는 지금 학교의 체육시간에 어느 팀에도 속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는 단지 자신이 되고자 했던 그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그녀에게 가장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던 중, 크리스탈과 가족들은 우연히 퀴어 롤러 더비팀 '버진 레짐'을 알게 된다. 단지 '퀴어'이기만 하다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공간. 롤러 더비 팀 '버진 레짐'안에서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든, 내가 동등하게 그렇지 않든, 내가 여성스럽든 부지 같은 상관하지 않는다. (출처: 제 15회 한국 퀴어 영화제)

GV 에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설립 준비위원회 '조각보' 활동가 및 공동위원장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핑동' 상임 활동가

강연 <퀴어페미니즘: 시스섹시즘, 이성애주의, 규범성을 질문하기>

양성애자는 언제 양성애자로 인식되는가? 무성애자는? 동성애자는? 이성애자는? 또한 트랜스젠더퀴어는 언제 자신이 원하는 범주로 인식되는가? 인식될 수는 있는가? 비트랜스젠더퀴어/시스젠더는 언제 자신이 원하는 범주로 인식되는가? 인식될 수는 있는가?

LGBT/퀴어는 '내' 주변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모니터 너머에만 존재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만연하다. 이런 인식의 축을 이루는 시스섹시즘, 이성애주의, 규범성을 질문하며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지 않은 사회, 끊임없이 나의 위치를 질문하고 사유하는 태도를 요청하는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연사 루인

MTF 트랜스젠더이며 젠더퀴어인 레즈비언

트랜스/젠더/퀴어/폭력과 범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저술, 강연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음.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퀴어 아카이브 퀴어락>에서 상근활동가로 활동 중

페미니즘

퀴어

중앙도서관 미디어실 A.Room 상영목록

메인영화 두 편에 더불어 중앙도서관 미디어실에서 추가적으로 페미니즘과 퀴어영화 4편을 상영합니다.

델마와 루이스(Thelma & Louise, 1991)



"Somebody said get a life... so they did."

남편에게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생활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평범한 주부 델마(지나 데이비스)와 독신 생활을 즐기는 웨이트리스 루이스(수전 스코틀랜드)는 어느 주말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여행 도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 들어간 조그만 시골 술집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가정과 남편에게 해방된 델마가 주차장에서 폭행당할 상황에서 루이스가 권총으로 그 남자를 살해하고 만 것이다.

루이스는 애인 지미에게 도피 자금을 부치게 한다. 그리고 델마는 남편의 냉정한 태도에 멕시코로 도망가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남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주는 델마 때문에 도피 자금을 길에서 만난 사기꾼 청년에게 도둑 맞는다. 이후 두 사람은 슈퍼에서 강도짓을 해 돈과 음식을 마련하여 여행을 계속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찰의 수사망은 좁혀오고, 뒤쫓아 오는 경찰차와 악질 트럭 운전사를 따돌리고 아리조나 그랜드 캐년에 도착한 델마와 루이스는 벼랑을 향해 악셀레이터를 힘껏 밟는데... (출처: 다음)

여섯 개의 시선(If You Were Me, 2003)



"차별을 거부하는 유쾌한 눈짓"

첫 번째 여행: 실업과 3학년 여고생의 속마음 훑쳐보기, '그녀의 무게(The Weight of Her)'.

두 번째 여행: 가까운 미래, 너무나 모범적인 아파트 구경하기, '그 남자의 사정(The Man With An Affair)'.

세 번째 여행: 하고 싶은 게 많은, 웃는 모습이 선한 청년과 거리산책하기, '대륙횡단(Crossing)', 네 번째 여행: 교양있고 부유한 부모 밑에서, 총명하게 자라나는 아이 만나기, '신비한 영어나래(Tongue Tie)'.

다섯 번째 여행: 쿨하게 잘생긴 남자와 미스 코리아보다 이쁜 아가씨와의 데이트, '얼굴값(Face Value)'.

여섯 번째: 평화와 사랑이 끝나지 않는 곳, 네팔로의 여행, '민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Never Ending Peace And Love)' (출처: 네이버)

헤드윅(Hedwig and the Angry Inch, 2000)



"전 세계를 사로잡은 자극과 쇼크의 무대"

동 베를린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한센'은 미군 라디오 방송에 심취하면서 '데이빗 보위', '루 리드', '이기 팝' 등의 음악에 열광하는 평범한 소년이다. 좁은 아파트에서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엄마를 피해 오토 속에서 미국의 락 음악을 듣는 것. 그러던 어느날 그에게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바로 미군 병사가 그에게 '여자가 되는 조건으로 결혼을 제의한 것' 이에 그는 성전환 수술을 받기로 하지만, 싸구려 수술의 실패로 인해 그에게는 여자의 가슴 대신 일인치의 실명어리만이 남게 된다.

몇 년후, 캔자스 트래일러에 사는 '헤드윅'은 <미녀 삼총사>의 주인공 '파라 포셋'의 가발을 쓰고, 록 밴드인 '앵그리 인치'를 조직하여 번두리의 바를 전전하며 노래를 불러 생활한다. 그러던 어느날 그녀는 우연히 16세 소녀 '토미'를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토미'는 그녀를 배신하고 그녀가 만든 곡들을 훔쳐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다. 대스타로써 성공한 '토미'는 백만장 이상의 앨범 판매 기록인 플래티넘 레코드 기록을 세우며 전국 콘서트를 개최하고, '헤드윅'은 '토미'를 따라다니며 그가 공연하는 공연장의 옆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공연을 하곤 하는데. (출처: 네이버)

브로크백 마운틴(Brokeback Mountain, 2005)



"Love is a Force of Nature"

눈부신 만년설로 뒤덮인 봉우리와 맑고 깊은 계곡, 한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 위에 노니는 수천 마리의 양떼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 8월의 브로크백 마운틴. 이곳의 양떼 방목장에서 여름 한 철 함께 일하게 된 잭 스몰의 두 청년 에니스(히스 레저 분)와 잭제이크(제임스 프랭크 분)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된다. 대자연의 품에서 깊어져간 그들의 우정은 친구 사이의 친밀함 이상으로 발전해간다. 그들 앞에 놓인 낯선 감정의 실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짧은 방목철이 끝나고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두 사람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

결혼해 아이를 낳고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4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단번에 브로크백에서 서로에게 가졌던 그 낯선 감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가능한 한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에니스, 아무리 무모하다 해도 두 사람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고 싶어하는 잭. 입장은 달랐지만 서로를 향한 애절한 마음은 한결같았던 두 사람은 그 후로 일년에 한 두 번씩 브로크백에서 만난다. 20년간 짧은 만남과 긴 그리움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관계는 뜻밖의 사건으로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출처: 네이버)